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직·대담한 性

40대 중반의 최씨는 성인이 된 이후 음경이 작고 짧다는 생각에 한 번도 친구나 동료와 같이 목욕을 한 적이 없으며 부부생활 역시 소극적이어서 부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조그만 고추'라고 무시하지 말라

질환으로 왜소음경과는 구별된다. 음경크기로 고민하는 남성을 진찰해보면 대부분 실제로는 정상 크기이나 본인이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신의 성기가 작다고 느끼는 이유는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음경과 비교할 때 위에서 내려다본 경우 앞이나 앞에서 본 것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크기와 성만족도와는 연관이 없으며 음경길이 평상시 5cm 이상이면 여성 성기의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여성들에게도 음경의 크기보다 상대방에게 받는 감정이나 기술 등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면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음경확대술은 처음에는 소아에 동반된 선천성 음경기형의 교정을 위해 시행되어서 수술의 일차적 목적이 기능적 개선보다는 외형적 측면 즉 시각적 개선을 통한 환자의 심리적 만족감 획득에 있었다.

함께 풀어봅시다 < 3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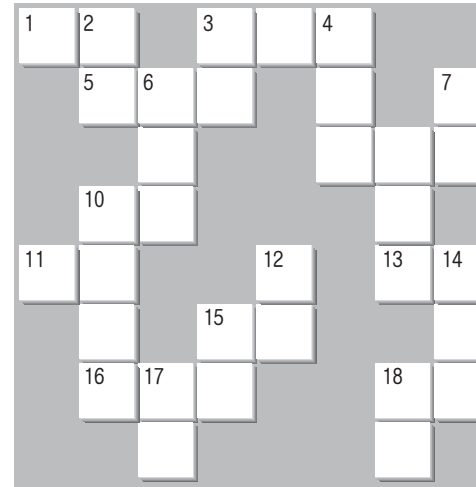
가로풀이

1. 늘 일정한 온도 또는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 보통 15° C를 가리킨다. 이 과일은 ~에서 보관한다.→황은. 3. 지질 시대의 구분에서 고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시기. 공룡과 같은 거대한 파충류를 비롯해 양서류·암모나이트 등이 번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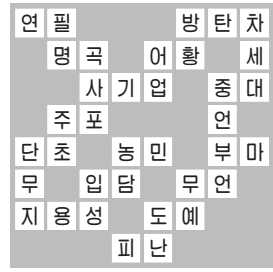
15. 몸에서 나는 냄새. 16. 적혈구와 혈청의 응집 반응을 기초로 분류한 피의 유형. 18. 객격적 부리는 혈기(血氣)나 용기. ~를 부리다.

세로풀이

2. 인공적으로 흙의 온도를 높여서 식물을 축성 재배하는 묘상. 또는 어떤 현상이나 세력 등이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로 몹시 앓는 병. 4. 유럽에서 임금이 즉위한 뒤 처음으로 왕관을 써서 왕위에 올랐음을 알리는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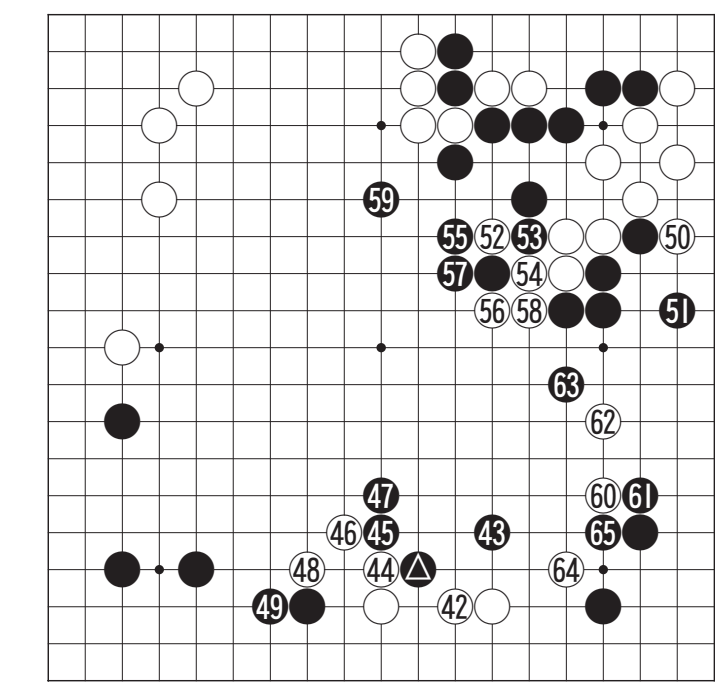


으로 이르는 말. 12. 북을 치고 피리를 분다는 뜻. 또는 사상 등을 열렬히 주장해 널리 알림. 애국심을 ~하다.→고무. 14. 소변을 만들어 배설하는 기관. 신장. 방광, 요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15. 체격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류되는 일정한 부류. 그는 키가 작고 마른 ~이다. 17.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에 있는 물질. 18. 기차에서 승객을 태우는 차량. ~ 열람.



<함께 풀어봅시다 304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양창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정승애·화순군 화순읍 교리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불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재부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이벤트대회
주문을 거부한 백 42
2회 1국 3보(42~65)
白 김영수 5단 黑 백승열 5단 (전남교사회) (농협)

흑 ▲는 세력을 쌓기 위한 상용수단으로 백 '참고도'의 1로 받아주면 흑 8까지 우변에 큰 세력을 쌓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수 5단은 이같은 상대의 주문을 단호히 거부하고 백 42로 응수한다.

바둑소식

이창호 9단이 제21회 후지쓰배 세계 바둑선수권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한국 선수 4명 중 유일하게 4강에 올랐다. 이창호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 대회 8강에서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을 맞아 200수 만에 세집 반승을 거뒀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음 5월 6일庚辰)

- 36년생 사기꾼이 달려드니 주변을 살피고 정리하라. 48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 60년생 중년이 나타나서 결망을 내놓는다. 72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라. 84년생 중년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37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있다. 49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61년생 여유로운 하루가 될 것이니 주변도 살펴봐라. 73년생 인자함을 보여주라. 85년생 전화위복이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
38년생 사기 도난의 손재주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50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하다. 62년생 부부사이 에 새로운 사랑이 탄생한다. 74년생 신변과 중도를 살펴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39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51년생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도 연결되니 욕심을 버려라. 63년생 큰 덕은 자신에 있다. 75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40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방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52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 배풀면 득이 된다. 64년생 용호상반이니 결과는 반반이다. 76년생 사방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 조심 보내라.
41년생 회비가 잊길리는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 53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고일 수도 있다. 65년생 시비가 생길 수도 자신에게 기운다. 77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다.
42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되니 거러서 들어라. 54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66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78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43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돌변을 조심하라. 55년생 짐작하게 서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67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중태는 안정하게 지라한다. 79년생 경성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44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자유롭게 진행한다. 56년생 애기 못 낳은 억울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68년생 새 문서가 눈앞에 나타난다. 80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리라.
4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57년생 조용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69년생 중직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 서도 여수선한다. 81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46년생 부부사이 에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진행한다. 70년생 중의 불변사가 발생한다. 82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변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47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대고 대화해야 하리라. 59년생 침체 속에 실리다 있다. 71년생 비정한 고층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83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77>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하죠?
A: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B: At 8:05. Any idea what time you're coming over?
A: I guess about 7:00.
B: Good. That will give us plenty of time to there.

* 결혼식이 몇 시에 있는가요?
= Any idea when the wedding i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77>

あ、韓國のDMBのことですね。
아, 한국의 DMB 말이군요
A: 私、携帯(けいたい)を換(か)えたいんだけど、何かいいですか。
B: やっほり、ワンセグ對應(たいおう)機種(きしゆ)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A: え? ワンセグって何ですか。
B: 地上(ちじょう)デジタルテレビ放送(ほうそう)を携帯で見られるサービスですよ。
A: あ、韓國のdmbのことですね。
A: 저,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뭐가 좋을까요?
B: 역시, 원세그(1seg)대응 기종이 좋지 않을까요.
A: 네, 원세그가 뭐죠?
B: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휴대폰으로 보는 서비스예요.
A: 아, 한국의 DMB말이군요.

デジタルテレビ放送(ほうそう) : 디지털방송
携帯(けいたい) : 휴대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54>

我弟弟今年十岁了。
내 남동생은 올해 열 살입니다
A: 你弟弟今年几岁了?
Ni didi jinnian ji sui le?
니 남동생은 몇 살이래?
B: 我弟弟今年十岁了。
Wo didi jinnian shi sui le.
저 남동생은 열 살이래.
A: 你妹妹今年几岁了?
Ni meimei jinnian ji sui le?
니 여동생은 몇 살이래?
B: 我妹妹今年九岁了。
Wo meimei jinnian jiu sui le.
저 여동생은 열 살이래.

A: 내 남동생은 올해 열 살이래?
B: 내 남동생은 올해 10살이래.
A: 내 여동생은 올해 몇 살이래?
B: 내 여동생은 올해 9살이래.
今年 [jin nian] 올 해, 금년
岁 [sui] 살, 세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양>
☎ 383-1605

한자 이야기 <794>

羞恥(수치)
부끄러워할 수, 부끄러워할 처
수치(羞恥)는 부끄러움이다. 치(恥)는 마음(心)과 귀(耳)로 이루어진 글자로, 마음이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짐을 나타낸다. 수치심(羞恥心)은 자신이 한 잘못이나 약점(弱點) 등이 남들 앞에 탄로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맹자(孟子)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수(羞)이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감정이 오(惡)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치심(羞惡之心)은 자신과 남의 잘못에 수치심을 느끼는 마음으로 '의(義)'의 실마리라고 한다. '의(義)'는 마땅함(宜)이므로, 인간이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인간의 길, 즉 도리(道理)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孟子, 公孫丑上)
성경에 따르면 수치(羞恥)는 인간이 느낀 최초의 감정이라고 한다. 금기(禁忌)였던 선악과(善惡果)를 따먹은 결과이다. 하지만 수치는 인간의 참된 지혜(知慧)로 인간과 짐승을 구별 짓는 문명(文明)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인간의 잘못에 대한 벌(罰)은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재발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낮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와, '얼치의 마음이 깨어지고 없어진다'는 과렴치(破廉恥)는 바로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인간을 경계한 것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